

필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조선 500년의 역사에서 나의 머릿속에 남아 특별하게 잊히지 않는 학자 두 분이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일생 동안 학문만 연구했던 성호(星湖) 이익(李暹, 1681~1763)과 호남의 장성에서 평생토록 학문만 연구했던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이 그분들이다. 거의 백 년의 터울로 성호는 18세기, 노사는 19세기의 인물이었다. 서로 지역도 다르고 생존 시기도 달라 전혀 교류의 가능성은 없었지만, 83세와 82세의 장수를 누리며 나라에서 벼슬을 내렸어도 일체 응하지 않으며, 오로지 학문 연구와 제자들의 양성으로 생애를 보냈던 점에서 두 분은 많은 유사점이 있다. 18세기에 조선 실학사상의 핵심을 완성해 다산 정약용에게 넘겨주었고, 성리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성리학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학에서도 새로운 이론을 많이 개척한 공로가 있는 분이 바로 성호였으며, 19세기 쇠퇴해 가던 성리학을 다시 일으켜 독특한 유리론(唯理論)이라는 체계를 세웠고, 시대적 사명에 충실하여 척사위정(斥邪衛政)의 논리로 엄습해 오던 외세를 막아낸 논리를 개척했던 분이 노사였다. 한때 성호는 실학의 거장이자 대학자로 숭배받으며 세상에 많이 알려진 데 비해, 노사는 세상에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 실학이야 관심을 기울이는 학문이지만, 성리학은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요, 위정척사 운동의 호시(曺時)인 상소문을 올린 노사를 그렇게도 알아주지 않아서 아 되겠는가. 더구나 호남 사람으로서 호남 최고의 성리학자요, 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 내서 '노사학파' 하면 역사적으로도 손꼽힐 큰 학파를 이룩한 학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말이나 되는 일인가. 노사는 독특한 학설을 창안하여 율곡과 같은 대학자의 이론도 비판했으며 아무도 말하지 못하던 새로운 이론을 과감하게 주장한 학자였다. 진사과에 장원하여 나라에서 고관인 호조참판이라는 벼슬까지 내렸어도 학문연구에 생애를 바치느라 일체의 벼슬에 응하지 않았다. 이

렇게 인격적으로 높은 수준에 오르고 학문이 뛰어났기 때문에 호남 일대 제자들은 말할 것 없이 경상도의 여러 고을 출신까지 제자로 들어와 영호남에 유리론이라는 성리학 체계를 풍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서세동점의 국제 정세 아래 민족정통의 주체성을 지키려는 위정척사 논리가 확대되어, 한말 의병운동의 중심은 대체로 노사 학파의 제자들이 주도하기도 하였다. 장성군의 진원면 고산리에는 노사 선생을 주벽으로 뛰어난 제자들 8분이 배향된 '고산서원'이 있는데, 해마다 봄과 가을로 전국의 유림이 모여 제사를 봉행하며 '노사학'을 강론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방대한 노사 문집인 '노사집(蘆沙集)'을 번역하고 있어 간행될 날이 멀지 않다. 최근에는 고산서원에 '노사학연구원'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노사의 학문 전체인 '노사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사학파나 노사학단은 세력이 너무 약하다. 인적 기반도 약하지만 물적 기반도 너무나 약해, 노사학의 진정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노사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의 학문에 관심을 갖는 사

람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노사는 그의 학문이 가장 왕성한 나이 46세에 당시 학계에서 크게 거론되던 '호락시비(湖洛是非)'에서 벗어나, 독특한 '남양사(納涼私議)'를 저술함으로써 호론(湖論)과 낙론(洛論) 모두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학문적으로 대단한 업적이었다. 죽음이 가까워 오던 81세에, 평생 동안 가슴속에 안고 있던 학설인 유리론으로 율곡의 문제점을 지적한, '외필(猷筆)'이라는 대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집념이 강한 학자를 어디서 쉽게 찾겠는가. 그래서 화답되게-율곡 등과 함께 노사를 조선 6대 성리학자로 추앙하고 있는 것이다. 한말의 대문장가 영재 이건장은 노사가 세상을 떠난 뒤, 노사의 손자로 학자이자 의병장이던 송사 기우만을 찾아와 노사의 학문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이건장이 노사 학문에 대한 시를 지었다. "사방으로 둘러싼 高山은 공경의 뜻 더 일고(四面高山堪敬)/ 성긴 대밭에는 가난이 흐르는 구나(一區陳竹不藏貧)/ 정밀한 마음으로 얻어낸 도는 당할 선배가 없고(精心造道無前輩)/ 박학(樸學)으로 가문 이은 손자가 있네(樸學承家有後人)" 노사의 높은 학덕은 이 한 구절의 시로써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법조칼럼



김상훈 변호사

지난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논란 속에 1심 선고 재판에 대한 생중계까지 결정됨에 따라, 재판장의 이유 요지 및 주문 낭독이 실시간으로 보도됐다. 피고인은 직권 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 등 18개 범죄 사실 모두 부인하였지만, 대부분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 24년 및 180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한때 대통령이었던 이의 범죄 사실, 형량으로는 심히 놀라운 결과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나라 전체로나 한 인생으로나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하므로 오늘을 잊지 않겠다'는 논평을 냈다. '오늘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란 야당 대변인 논평은 청와대 논평과 같이 미래를 대비한 교훈을 말하지만 그 지향은 마

정치 보복 프레임, 과연 타당한가

우 다른 것 같다. 야당 대표가 이틀날 SNS에 올린 '돈 1원 받지 않고 친한 지인에게 국정 조연 부탁하고 도와준 죄로 파면되고 징역 24년 가는 세상'이란 인식도 마찬가지다. "정권이 교체되고 정치 헤게모니가 바뀌니, 과거 사소한 허물을 부풀려 단죄하려 든다!" 이른바 '정치 보복' 프레임이다. 친한 지인에게 국정 조연 부탁하고 도와준 죄 정도는 파면, 형사 재판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불만이고, 현 대통령도 정치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검찰청과 법정에 소환될 수 있다. 혹은 언젠간 소환하고 싶다는 간담 서늘한 경고라 할 만하다. 국회가 소추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검찰이 기소해서 형사 법원에서 24년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피소추자 및 피고인이라기보다 '정치 피해자'란 규정이요. 과연 그런가. 야당 대표와 대변인은 프레임만 주장할 뿐 정작 중요한 자료와 내용용은 생각하고 있다. 소비자는 붕어빵 소가 단팔인가, 크림이 가로 구배를 결정하는 것이지 같은 틀에서 나오기만 하면 단팔인지 크림인지 모르고 같은 붕어빵이라 현혹되지 않는다. 또 이들의 주장에는 검찰, 법원은 사법도 이를 원리대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형의 역학 관계를, 때론 정치 보복을 수

행하는 정치 하위 단위라는 폄하가 깔려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같은 관점을 사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다. 이번 생중계로 선고된 범죄와 이유 고지를 보자. ①사기업에 금품을 요구하고 납품·수주를 강요하거나 퇴진 압박한 유형이 9개로, 미르재단 및 K스포츠험단 774억 원 모금,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 강요, 현대차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강요, 롯데그룹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 기금 70억 원 기부 강요, 포스코에 베드민턴팀 창단 강요,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강요,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 삼성그룹에 동계 영재 센터 지원 강요, CJ그룹에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가 있다. ②공무상 비밀 누설은 47건 중 14건이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33건은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그 이유는 압수 절차 위반으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적 때문이지 그 누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③대기업에 대한 뇌물 4건 중 3건(롯데, SK, 삼성 정유라 관련)은 유죄로 인정되었고, 문제된 액수도 수백억 원이다. ④인사조치(노태강, 문체부 1급, 하나은행 본부장),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이르바 블랙리스트) 등 4건의 직권 남용, 강요도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1심 판결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험단

은 피고인의 지시로 최서원(최소실)이 설립한 것으로, 이권의 실질적 수익자로 자주 등장하는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게이는 최서원이 설립한 것으로, 최서원의 딸인 정유라는 단순 뇌물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귀속처로 판단됐다. 이를 두고 '친한 지인에게 국정 조연 부탁하고 도와준 죄' 정도의 사소한 허물로 두둔할 것이 아니다. 필자는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답화문을 기억한다.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한,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다. 그동안 기회는 특권층에 독점돼 있고, 과정은 편파적이고 불투명했으며, 결과는 수긍할 수 없이 부정했다. 때문에 연일 촛불시위가 일어났고, 다수당(현 야당)마저 돌아서 국회가 탄핵을 소추했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것이다. 여기에 어디 정치 보복이 끼어들 틈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연장선에 있는 공평, 공정, 정의를 향한 이번 기소와 판결 역시 정치 보복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2017년 10월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온 피고인이,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정치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필자는 최소한 사법 공장에서 정치 투쟁이 유효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기고



이재남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선생님이 물었다. “해는 어느 쪽에서 떠서, 어느 방향으로 지는가?” “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당연한 답변이다. 우리는 매일 확인한다. 두 눈으로, 명확하게, 의심 없이, 매일 반복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확인되는 사실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사실이다. 누가 이걸 의심한다면 말인가? 지금도 인간의 경험 세계에서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 현상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태양이 떠서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생각을 한 이가 있었으니, 지금

세월호, 코페르니쿠스, 자율 인간

으로부터 545년 전에 태어난 코페르니쿠스다. 그의 이런 생각이 출현한 것은 현생 인류가 시작 된지 약 10만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다. 지동설은 그래서 10만 년의 세월 속에서 잉태된 사유다. 10만 년 만에 등장한 이 진리 사유가 금단에서 풀려나가기까지는 그 후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흘러나왔다. “여러분! 구멍조끼를 입고, 배 안에서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는 배였다. 위기 상황에서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통제부의 안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의 DNA다. 경계감동하지 마라, 질서를 지켜라, 혼자 살려고 발버둥치면 다 죽는다. 때가 되면 구조대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침착하게 서로 의지하며 대비해야 한다. 맞다. 누가 이 행동 지침을 의심한다면 말인가?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경험적 진리였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그 믿음은 자동설의 총격처럼 결국 우리 모두를 깊은 바다 속으로 인도하

고 말았다. 4년 전, ‘가만히 있으라’는 그 방송은 마치, 10만 년 동안 인류가 매달려온 천동설을 닮았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이 신화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늘과 지구 중심의 중세 세계관을 무너뜨린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것은 모든 것을 회의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려는 인간 이성의 분출이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이 근대화의 화신은 그날 진도 팽목 앞바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삼켜버린 괴물이었다.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가만히 있으라’고 세뇌하는 이 괴물에 맞서야 한다. 그 위대한 자각이 결국 촛불의 바다를 일렁이게 했다. 그 바다 밑에서 잠자고 있던 소중한 것을 깨워 건져 올렸다. 나는 그것을 ‘자율 인간’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자율 인간’은 통제 중심의 질서를 거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추구하며, 그 결과를 반성적으로 되돌아 볼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 그래서 자율 인간에게 가

장 중요한 덕목은 ‘비판 능력’과 ‘개인의 추구’다. ‘비판’과 ‘개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온전하고 시급히 회복시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무엇인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그것의 한계를 더듬어 보는 과정이다. 경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인류가 진보하기 위한 유일한 기제다. 천 길 남머리지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은 자유의 추구를 그 본질로 한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는 어떤 이유로든 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수단화 되어도 안 된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커질수록 우리 모두의 자유와 행복도 함께 커진다는 믿음과 사회적 실천이다. 자율 인간에게 요구되는 ‘비판적 이성’과 ‘개인 추구’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 광주교육청은 4년째 세월호 추념 주제를 ‘자율 인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에 방치하는 일이 없게, 교육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아침이다.

社說

세월호 참사 4주기,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나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다. 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또렷하다. 최근 발견된, 희생된 학생들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내는 육필 편지 모음집(“그리운 너에게”)을 대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 “그리고, 또 그리고 보고 싶구나. 억울하고, 억울하고,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난다. 지금쯤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네 꿈인 선생님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을 텐데. 아빠는 너무 화가 난다, 지켜 주지 못함이.” “너는 엄마에게 보이고 여름이고 가을이며 겨울이야. 너는 바람이며 벗꽃이며 나무와 숲이며 파란 하늘이고, 수없이 떨어진 낙엽으로 덮여 있는,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길이며, 하얗게 평평 쏟아져 내리는 함박눈이기도 해.”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자식을 가슴에 품고 남을 생을 살아야 하는 엄마-아빠들의 고통이 절절하다. 부모들은 ‘떠나는 글’에서 “세월호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4년을 지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이 삶의 존재 이유였다는 것이다. 그렇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묻혀 있고 미수습자 다섯 명은 여전히 낙엽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목포선형에서는 현재 미수습자 수색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세월호 선체 직립 등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다음달 6일까지 세월호 추가 수색과 조사를 마치고, 오는 8월 6일까지 최종 보고서·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침몰 원인이 적시될 것으로 예상돼 외부 총독설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을 씻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 규명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등에 대한 정확한 진실 규명 노력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를지라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국제적 관광 명소로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무등산 주변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준받은 쾌거로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204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광주시와 담당·화순군이 공동 신청한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됐다. 국내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이번이 제주도와 청송군에 이어 세 번째이다. 세계지질공원에 포함된 지역은 광주 시·담양군·화순군 일대 1051.36㎢ 규모다. 이 중 지질 명소에는 천양봉·지왕봉·인양봉 등 무등산 정상 3봉과 서석대·임석대,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와 적벽 등 20곳이 포함됐다. 역사 문화 명소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죽녹원·소쇄원 등 42곳이 들어갔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고고학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보전과 교육·관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꾀하는 제도다. 제주도를 비롯해서 그동안 인증된 세계지질공원들은 관광 수요와 지역민 고용 효과가 크게 높았다고 한다. 무등산권은 지난 2014년 12월 국가 지질공원에 지정에 이어 이번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보존 및 이용의 조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우리는 무등산권을 어떻게 세계화하고 국제적 관광 명소로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광주·화순·담양 지역 명소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관광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지질 관광) 활성화를 통해 그 혜택이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사랑에는 원본이 없다.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 공유되는 고유한 체험이다.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찾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사랑은 ‘일 만개의 직소퍼즐’ 같다.” 시인인 서울예대 언론영상학부 주창훈 교수의 저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내용이다. 저자는 ‘미켈란젤로의 발견’을 예로 들며 사랑은 발견이라고 정의했다. “평범한 대리석에서 특별함을 찾아내는 미켈란젤로의 작업”과 같다는 의미다.

사랑

를 이루는 양가적 입장을 견지했다. 사랑은 이처럼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변모해왔다. 그러나 어떠한 사랑의 형태와 개념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 위대하거나 숭고하지 않다. 신의 인간을 향한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다시 말해 아가페적인 사랑이 부모의 마음이다. 오늘날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는 날이다. 진도와 인천 등 전국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희생된 학생들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쓴 육필편지 모음집이 발간됐다. (사)·16 가족협의회와 (사)·16기억재단은 영감의 원 16기억재단소가 엮은 ‘그리운 너에게’는 110편의 편지를 담고 있다. 편지를 통틀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바로 ‘사랑한다’는 단어다. “너를 처음 사랑한 사람도, 너를 가장 오래 사랑한 사람도 얼마큼 아름다운 걸. 언젠가 내 곁에 함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보고 싶다.” 자식을 향한 절절한 마음에 절로 웃음이 여며진다. 사실 많은 이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랑한다’는 말이다. 늦기 전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면 어떨까.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subscription, advertising, and circulation.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